

31회 동문들 2012년 체육대회 前과後

2012년 총동문체육대회 주관을 31회에서 했다. 대개는 체육대회를 정점으로 크고 작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중 31회 동문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엿보기로 했다.

총동문체육대회 당시 “처음처럼”이란 슬로건을 걸었던 31회 회장(신재)이 전하는 전언에 의하면 크고 작은 변화가 많았다고 한다.

그 첫 번째가, 10여명의 부인들로 구성된 ‘운세미’ 모임이 결성되었다고 한다.

부인들은 매월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고 부인들만이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며 삶의 지혜를 나누고 있다고 한다.

그 다음으로 그동안 연락이 안 됐던 동기들 소재가 파악되면서 동기들 근황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동창회 유무 확인이 안 되어 연락방법을 몰랐던 친구들이 동기들 입을 통해 아름답게 알려지면서 한명, 한명 모여들면서 새로운 분위기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각자의 취미에 맞도록 소모임이 활성화되면서 골프, 등산, 낚시 등의 취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7월22일 정모 및 야유회를 통해 많은 동기들이 모여 동창회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10월7일엔 강화로 천엽을 다녀오기도 했다고 한다. 좋은 현상이다.

총동문체육대회가 동창회에 알게 모르게 주는 영향은 매우 크다.

동창회가 구성되고, 동창회의 필요성을 각자가 알기까지는 대체로 몇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어떤 계기가 필요하다.

그 조건을 보면, 20대 때는 사회 초년생으로서 사회 분위기에 적응하기 위해 눈코뜰새 없이 살아가는 시절이다.

30대 때는 결혼을 하고 가정 꾸밈거나 꾸미는 시기이기에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는 시기이다.

40대는 자녀가 성장하면서 신경 쓸 일이 많은 시기이다.

지천명의 나이가 되면 이런저런 일들에서 조금은 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서 앞과 뒤를 돌아볼 여유가 조금씩 생기게 되면서 동창회에 관심이 가기 시작한다.

31회 동문들도 같은 맥락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됐을 것이다.

총동문체육대회를 주관하는 기수의 나이가 대개는 지천명의 나이이다.

세상 물정을 어느 정도 알게 된 나이이기도 하거니와 가정이 안정된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난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시기이니 동창들이 생각하고 궁급해지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 동창 애길 하면 공감이가고 수긍을 하면서 참여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31회 역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며, 다른 조미료를 첨가했기에 더 많은 동기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전기과 체육대회



전기과 체육대회가 지난 10월14일(일) 모교 운동장에서 동문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김동구(26회)전기과 동문 회장을 비롯한 모교 김관일 교장선생님 그리고 은사님을 모신 가운데 열렸다.

행사에 앞서 김동구 전기과 동문회장은 모든 일상생활을 떠나 마음껏 운동장을 뛰며 하루를 보내자고 주문했다.

이번 대회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투호와 홀라후프를 비롯한 족구, 배구, 농구, 줄다리기 등으로 이어졌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 갖가지 게임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아기자기하게 했다는데 주목할 수 있었다.

(전기과 카페주소) www.kw00.net/cafe/kwatt

전기과 1974년 탄생 39년을 향해...

전기과는 1974년에 탄생해 입학생을 처음 모집했으며 종합 기수로 25회에 해당한다.

1회부터 8회까지는 한 학급만 있었기 때문에 3년간 같은 학급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으며, 그 덕에 동기들간 정이 깊어 지금도 형제 못지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982년부터 2개의 학급으로 증원됐으며, 현재도 2개 학급의 전기과가 유지되면서 동문을 양산해 내고 있다.

39년을 며칠 눈앞에 두고 있는 형국이다.

행사에 앞서 김동구 전기과 동문회장은 ‘지난 2010년10월 두번째 일요일에 제1회 전기과 동문 체육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3회째 전기과 동문 가족들이 모여서 전기과 동문만이 모여 단합을 도모하고 모교와 총동문회에 적극 기여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10월의 가을 햇살을 받으며 이마에 땀방울을 흘리며 정을 나누는 전기과 체육대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아름답고, 참신한 형제의 모습으로 자리매김해 나가는 것도 체육대회를 통해 모두가 하나가 되겠다는 의지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 더욱 아름답게 보인 대회였다.

